신용경색 해소… 지수 2,000 재도전

■9월 증시 전망

펀드 자금 유입 지속… 기관 매수 여력 충분

조선·기계·철강 등 '중국 관련주' 노려볼 만

연일 미국 증시와 등락을 같이 하던 코스피지수가 28일 종전과 달리 미국 증시 하락에도 불구 전일 대비 26포인트 가량 상승하면서 9월 증시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이에 변동성 축소와 함께 점진적인 반등을 모색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8일 코스피지수는 전일 대비 26.28포인트 상승한 1829.31로 마감하며 50포인트 가량 하락한 미국 증시와 모처럼 방향을 달리하며 변동성 국면에서 탈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코스닥지수는 0.20포인트 하락한 760.43을 기록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대한 우려가 점차 해소되면서 변동성이 점차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런 추세는 9월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내 주식형 펀드로의 지속적인 자금 유입에 따른 기관의 매수 여력을 바탕으로 지수 2,000 재도전을 모색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증권사들은 예측했다.

현대증권은 증권사 중에서 지수 전망폭을 가장 넓게 잡아 저점 1,600, 고점 1,960선을 제시했다.

현대증권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신용도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서브프라임 관련 추가 손실 가능성이 있어 변동성 확대 요인이 남아 있지만 글로벌 경제의 견조한 확장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주식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굿모닝신한증권과 대신증권은 코스피지수가 견조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해 지수 저점을 주요 증권사 중 가장 높은 1,780선으로 제시했다.

굿모닝신한증권은 미국 내 서브프라임 후폭풍이 여전하지만 각국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이 강화되고 있고 기업 실적 개선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며 우량 대표주를 중심으로 한 분할 매수 전략을 조언했다.

굿모닝신한증권은 코스피지수의 고점으로 1,900선, 대신증권은 1,890선을 제시했다.

비교적 낙관적인 견해를 제시한 다른 증권사와 달리 동양종금증권은 9월에도 신중한 투자를 권유했다.

삼성증권은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 유입과 밸류에이션 부담 완화라는 호재와 미국 경기회복 지연 등의 악재가 맞물려 지수가 1,700과 1,880 사이에서 등락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 전문가는 "8월 약세장에서 급락했던 조선, 기계, 철강, 화학 등의 '중국 관련주'와 증권, 보험 등의 금융주 그리고 M&A(인수합병)과 지주회사, 지배구조 등의 테마를 가진 종목 등을 노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은행들 대출시 펀드가입 강요

'꺾기 영업' 8곳 적발

시중은행들이 대출을 대가로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 영업을 하다가 금융감독 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8일 펀드 판매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위반한 국민·우리·신한·하나·외환·제일·씨티은행 등 7개 시중은행과 1개 지방은행의 임직원들에 대해 문책 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들 은행의 157개 지점에서 대출 고객들을 상대로 펀드 가입을 강요한 사례가 358건이나 적발됐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또 피해 고객은 297명에 이르며 이들이 가입한 펀드 금액은 2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은행들의 펀드 판매 실태에 대한 특별검사를 벌였다.

은행들은 예전에는 대출을 대가로 적금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펀드 판매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직원들에게 펀드 판매 실적을 할당하고 이에 따라 직원들이 실적 달성을 위해 꺾기 영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연합뉴스

황토염색 체험 광주 동성여중(교장 최경) 학생들이 28일 담양군 수북면 산소마을에서 황토염색에 대해 체험학습을 하고 있다. 동성여중과 산소마을은 지난 7월 전남농협 주선으로 1교1촌 자매결연을 체결한 바 있다. 〈농협전남본부 제공〉

지방소재 20년 이상 사업 성실 납세

2년간 세무조사 면제

도·소매업 등 6만여명

지방에서 20년 이상 사업하면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한 개인 사업자는 앞으로 2년 동안 정기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된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28일 춘천세무서를 순시하면서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온 지방의 장기 계속사업자에 대해 이같은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초부터 생산적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차세대 성장동력 중소기업, 지방소재 30년 이상 장기사업자 등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방사업자의 경우 계속사업기간을 20년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지난해 말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구역 이외의 비수도권에서 20년 이상 장기로 계속사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는 도·소매업 4만548명, 운수업 등 1만1천58명, 음식·숙박업 6천494명, 어업·광업 3천75명, 농업·임업 1천183명 등 6만2천358명이다.

이들 사업자 중 기장소득신고자로서 소득세 총수입금액 증가율과 신고소득률이 업종 평균 이상이거나 부가가치세 과표 증가율 및 부가가치율이 업종 평균 이상이면 앞으로 2년 동안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이미 정기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2009년 12월까지, 3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연합뉴스

"산업계 '저탄소 경제' 대비하라"

LG경제硏 보고서 선진국 환경산업화 진행

앞으로 나라 전체가 '저탄소 경제'로 바뀌는 만큼 경제 주체들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홍정기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온실가스 규제, 환경산업 지형 바꾼다'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온실가스 규제와 이가스 배출권의 거래시장 확대는 그동안 정체돼 왔던 환경산업의 성장을 촉진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환경산업의 양적인 변화 못지않게 주목해야 할 것은 환경산업의 질적인 변화라고 말했다. 온실가스 규제는 기본적으로 환경산업의 성장 패러다임을 바꿀만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온실가스 규제 강화는 환경과 에너지의 통합을 넘어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전 산업의 환경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 대한 연비 규제가 강화되면서 하이브리드카, 연료전지자동차, 바이오연료자동차 등 친환경차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기업들 英 프리미어리그 배워라"

삼성경제硏 분석 개방·경쟁이 성공 비결

잉글랜드 축구 '프리미어리그'의 성공비결은 '개방과 경쟁'에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8일 '프리미어리그에서 배우는 흥행의 법칙'이라는 분석자료에서 프리미어리그의 성공비결은 시장을 활짝 열었다는 데 있다고 분석했다.

"프리미어리그는 선수, 감독 뿐 아니라 구단주까지 국적을 불문하고 문호를 개방한 결과, 경기내용도 다양해지고 축구기술도 발전했다. 프리미어리그의 외국인 선수 비중은 1992년 20.8%였으나 2007년 60.2%로 올라왔고 외국인을 감독으로 둔 팀은 절반을 넘는다"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또 치열한 경쟁원리를 도입한 것도 프리미어리그의 성공요인이라고 말했다. 매 시즌마다 하위 3개 팀은 하위 리그로 강등되는데, 이런 팀은 중계권료 등에서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팀들은 시즌이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팬들에게 집중하는 마케팅 혁신도 큰 역할을 했다고 연구소는 밝혔다.

이 연구소의 허송 연구원은 "고객을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고객을 찾아가는 것이 프리미어리그 성공의 원동력"이라면서 "기업들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